

## 현대 문명 위기 극복을 위한 원효와 하이데거의 존재이해

김 원 명(한국외국어대)

**【주제분류】** 한국불교철학, 비교철학

**【주 제 어】** 일심이문(一心二門), 존재, 이중성, 현대 문명의 위기

**【요 약 문】** 이 논문은 현대 서양과학기술문명 위기 극복의 형이상학적 대안을 제시한 하이데거의 존재자의 존재 회복을 탐구와 원효의 귀일심지원(歸一心之源)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둘을 비교 연구한 이유는 현대 한국문명의 위기는 서양과학 기술 문명의 수입과 우리의 전통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양 형이상학이 존재 망각을 하여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우리는 서구화의 현대적 과제 속에서 서구과학 기술문명의 수입과 동시에 서구의 위기를 함께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근본 마음을 상실해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하이데거와 원효의 사색의 길을 돌이켜 보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고자 한다. 그 길에서 둘의 사유가 고유하면서도 서로 소통 가능한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하이데거는 존재의 감추어진 무(無)의 측면·침묵의 측면, 즉 스스로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강조해 밝혔다. 그리고 원효는 일심이문(一心二門)에 대한 사색에서 마음의 전일성 가운데 이중성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원효가 밝히는 일심은 심생멸문(心生滅門)과 심진여문(心眞如門)으로 서로 나누어지면서 이문이 서로 섞이지 않고[不相雜] 하나가 아닌[非一] 이중적 구조와 그 안의 통일성이 있다. 일심 이문은 각각 모두 일체법을 총섭하여 서로 여의지 않으며[不相離] 다르지 않다[非異]. 드러나 작용하는 것은 생멸문의 세계이다. 진여문의 세계는 작용이 없다. 하이데거가 강조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무적(無的) 측면이다. 존재는 나타나는 측면과 감추는 측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심이문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 때문에 일심이문의 이해와 존재의 이해가 통관(通觀)적 지혜를 주며

현대문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문명은 각자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종교와 철학을 통해 익힌 바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벗어나 길을 헤매면서, 끄트머리를 붙잡고 달려가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근원을 바라보면서도 지류에서 헤매고, 잎사귀를 잡고서 줄기를 잃으며, 옷깃을 풀어서 소매에 붙이고, 가지를 잘라서 뿌리에 두르려 하고 있다. 혹은 대롱으로 하늘을 다 보려 하거나, 소리로 온 바닷물을 다 길으려 한다.

원효는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동체대비(同體大悲)한 마음을 발해,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마음이 되어 잘 어울려 살라는 삶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 위기 극복의 철학적 지원지는 바로 우리 마음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우리의 20세기 현대문명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전기(前期) 과제는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일찍 서양적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조국의 독립이었다. 중기(中期) 과제는 독립신생국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갈리고 이어서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재건이었다. 후기(後期) 과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부흥과 세계 속 한국의 정립이었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전쟁에 내던져져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살아남고 먹고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 이어서 경제부흥을 통한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속에 던져져 있었다. 강대국의 원조 속에서 목숨을 연명하며 언제 전쟁이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휴전된 분단국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현대화는 우리의 의심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었다.

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서 남북 경쟁체제로 더욱 굳어지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남

쪽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보호와 원조를 받으며 그 영향 아래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부흥을 위한 산업화와 함께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UN의 구호물자 원조를 받는 후진국에서 OECD 회원국이 되고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지난해에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이후 아시안 게임·올림픽 게임·월드컵·APEC 정상회담 등 세계적인 행사들을 차례차례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으며 동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 유치에도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20세기 중반 전후의 신생독립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한국처럼 단기간에 잘 정착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범적이다. 이제 우리는 비서양권 국가들 중 몇 안 되는 훌륭하게 서양 문명화된 국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학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인문학이 위기라고 한다. 또 자연과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문도 위기라고 한다. 또 조기유학과 조기유학 가정으로 인한 학교교육 위기와 가정해체 위기를 이야기한다. 또 한국경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위기라고 한다. 그리고 올 겨울 유난히 춥지 않았던 것은 일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하며, 2월부터 황사가 한반도의 대기를 위협하고 봄마다 일기예보에 황사 예보를 빼놓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걱정들은 환경에 대한 위기감과 관련되어 있다. 또 지난 가을의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혹은 부동산 버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부동산 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자살률이 세계 순위권이며, 이혼률이 세계 순위권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적·학문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문제에도 만연되어, 전염병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는 분위기이다. 왜 우리는 유례없는 수출호황과 경제부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기감

이 만연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한 마음을 부르짖을 때는 역설적이게도 한 마음이 망각되고 찢어지고 갈라진 때이다. 현 시대는 한 마음이 망각되고 갈라져서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못사람에 대한 어진 마음은 추락하여 되살아날 길이 점점 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은 도시화된 현대문명의 닦달 속에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힘을 더욱 상실해 가고 있다.

가족들은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유산의 힘에 반목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정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문명의 돈 앞에서 기억 상실증의 증병에 시달리고 되살아날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친구는 그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그의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믿음과 우정을 달리하며 내게 이익을 줄 이용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정신적인 것의 본질은 망각되어 가고 있다.

사람이 살맛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또 있는 것들의 생생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잊은 채 계속 닦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형제자매들로부터 온 전화에 왜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인가? 선생님께 진화를 드리는 것이 왜 기겁지 않은 것인가? 봄에 돌아나는 베란다 화분의 꽃망울과 새싹에 충만해진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가와 입가의 미소와 슬픔에 함께 기쁨이 일어나고 함께 슬픔이 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절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선 20세기 말을 지나 21세기 초에 서 있다. 그런데 영광과 온갖 성취가 빛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온갖 위기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 현재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우리의 온갖 위기의 시원(Anfang)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또는 존재)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실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위기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 우리가 현재 겪는 문제를 풀기 위한 철학적 해결을 위해 논자는 다음의 순서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불러일으킬 존재 물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문명의 존재 이해, 그 시원으로서 원효의 마음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대 문명의 병리현상과 정신의 추락에 대한 하이데거의 현대문명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와 진정한 앎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에서 우리가 불러일으킬 21세기적 존재 이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 2. 현재 불러일으킬 존재 지혜 물음

우리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존재 이해의 전통은 무엇인가? 고대 한국의 상고시대로부터 전해지는, 아주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그 이야기에서 보이고, 원효(元曉, AD617~686)의 『기신론(起信論)』 주석에 보이는 홍익중생(弘益衆生)과 너무나 유사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은 어떤 존재 지혜의 전통으로부터 길어져 나온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수천 년이 지난 고려라는 불교국가 시대의 스님 일연(一然, AD1206~1289)이 어떤 지혜 전통 속에서 그의 책 『삼국유사(三國遺事)』 첫머리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널리 백성들 삶 속의 괴로움을 절감하고 그들을 어엿비 여기며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자유로이 읽고 쓰기를 갈망하며 훈민정음(訓民正音)<sup>1)</sup>을 만들도록 한 그 힘은 조선이라는 유교국가 시

1) 참조. 유창균 편저,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1988, 121쪽.

대 세종왕(世宗王, AD1418~1450)의 어떤 존재 이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인가?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며 각자 스스로 평등한 한을 닮았다는 동학운동은 19세기 조선말기의 시대정신이자 종교운동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어떤 지혜 전통 속에서 일어난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한국 문명의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분출하게 하며 또 21세기에도 또 그 앞으로 계속 각 시대의 시대정신을 분출하게 할 지혜 전통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 이해의 전통이 시원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지혜인가? 우리의 어떤 지혜 전통이 인도·중국·유럽의 외래 고등문명과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외래 고등 종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내면화시키며 이제 남의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고 오히려 유학과 불교와 기독교가 그 발상지보다도 더 열렬한 환호와 믿음으로 활발하게 살아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의 존재 이해 전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전히 그 전통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인가?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우리 현대 한국의 위기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현대 한국의 위기들을 언급하였는데, 그 위기들에 대한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로 인해 서양 과학기술 문명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틈도 없이 배우고 들여오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 같은 문제를 함께 안게 된 것이다.

둘째는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통적 삶의 문법이 해체되어 간 것이다. 즉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생기(生起)해온 온 존재 이해를 급속하게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 존재 이해를 불러 일으켜 이해하고, 또 서양과학기술문명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탐구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존재이해의 시원을 찾기 위해 한국 철학의 시작 시

기의 대표적인 사색가의 존재 이해를 탐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효 사색의 길을 탐구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서양과학기술문명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해법을 찾아 존재 망각의 역사에서 존재를 존재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현대 독일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AD1889~1976)의 사색의 길을 탐구할 것이다. 두 분의 사색의 길을 살펴본다면 저절로 두 분의 존재 이해의 틀이 비교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두 철학자의 존재 이해가 각각 고유한 가운데 소통되어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이데거는 20세기를 기술과 과학의 세기로 보고, 그 기술과 과학이 인류에게 안겨줄 안락과 동시에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를 염려하였다. 그는 기술과 과학의 논리는 서구 형이상학의 토대에서 자란 것인데, 서구 형이상학의 일면적이고 일방적인 이성 중심의 논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극복할 21세기의 삶의 문법과 문화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과학의 논리가 삶을 지배하고 생활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논리만이 유일 타당한 시각으로 간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경고한다. 삶을 과학의 논리에서 자유롭게 하여 삶의 다양한 차원과 풍부한 논리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이라는 그의 주저에서 ‘와’는 시간 속에서 생기(生起)하는 존재의 생기, 존재사건을 보며 그 관계를 탐구한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사태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존재나 존재논리의 주장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사건에 던져져 있으면서 존재의 부름에 나름대로 응답한다.<sup>2)</sup>

하이데거가 서양문명의 역사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존재이해가

2) 참조.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586-588쪽.

있었다고 밝히듯이, 우리 문명의 역사 속에서도 서양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존재 이해의 불씨가 있어서 각 시대마다 세계 고등 문명과 고등 종교의 지혜 전통을 이해하여 흡수하고 내면화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시대적 문제 의식을 발현할 수 있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며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삶 속에 언어 속에 알게 모르게 있을지도 모를 그 불씨를 살려낸다면, 위기 해소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사색의 길에 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존재 부름을 묻고 사색해야 하고,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서양화된 한국의 시대적 존재지혜 물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양적 존재지혜 물음의 사색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의 마음 철학을 중심으로 존재 이해 문제를 고찰하고, 하이데거 철학에서 존재 이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우리의 상실되어 회복되어야 할 존재 이해의 지평과 현대문명의 뿌리인 서양의 본래적 존재 이해의 지평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과 아울러 고유성이 드러나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3. 한국문명의 존재 이해, 그 시원 : 원효의 마음 이해

고대 한국인들의 철학 시작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삼국시대에 또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많은 글을 남기고 또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전해오기도 하는 전적을 가진 이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고대 한국인들의 존재 이해 전통을 불교적으로 승려로서 잘 이해하고 정리한 고대인 가운데 한 분이 원효이다.

원효가 주석을 달면서 깊이 관심을 가졌던 전적 가운데 하나가 『기신론(起信論)』이다. 이 책에는 마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원효는 마음에 깊이 주목하고 있다. 원효에게 원효 시대에 존재의 부름이 마음의 부름은 아니었을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부름을 원효는 그 자신의 마음의 원천에서 떨어오는 마음의 소리로 본 것은 아니었을까 논자는 생각한다.

소년 원효는 자신이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고,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소년 원효가 약관의 나이에 출가를 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골품제 사회에서 6두품 출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7세기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통일되기까지 수십 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청년 원효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처님은 중생을 아들 라후라로 여기며 불난 집에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생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대승불교의 대비(大悲) 가르침을 공부하며 원효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남을 떠난 자비인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원효는 마음이 어땠을까?

원효는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종류로 힘을 쓰는 것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는 다음 구절을 읽고 또 인용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린 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운다. 여인은 성내는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성을 내고 난 후에 말한다. 고행을 하며 도를 닦는 이들은 참는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겸손할 것을 생각한 뒤에 스스로 말한다. 국왕은 교만한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이런 남을 업신여기는 위세를 부림으로써 스스로 말한다. 아라한은 한결 같은 정진으로 힘을 삼아 스스로 말한다. 모든 부처와 세존은 대비(大悲)로써 힘을 삼아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弘益衆生).”<sup>3)</sup>

원효는 여래가 설한 일체 법문의 근본 뜻이 바로 일심이문(一心二門)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이 일심이문 안에 어떤 하나의 법이나 뜻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일심이문이란 무엇인가?<sup>5)</sup> 원효는 일심이문을 설명하면서, 일(一)과 이문(二門) 그리고 심(心) 모두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나 구분되면서도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불상리(不相離)하면서도 불상잡(不相雜)하다는 설명을 한다.

서양에서는 그 시대마다 존재를 비은페성(알레페이아), 자연(피지스), 헤라클레이토스나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나 그리스도교의 로고스, 아낙시만드로스의 무규정성(아페이론), 파르메니데스의 하나(헨), 플라톤의 이데아, 본체(우시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네르게이아로 표상하거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순수존재현동(純粹存在玄動), 데카르트의 무한자, 헤겔의 절대정신, 니체의 힘에의 의지 등등으로 표상해왔다.<sup>6)</sup> 존재에 대한 그 시대마다의 이와 같은 이해는 존재가 열어 밝혀져 있으면서 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도록 해준다.

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시대마다 철학자들마다 존재로 표상해온 것들이 각기 다른 말들로 드러나지만 이 말들을 표상하도록 해주는 그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열어 밝혀져 있다는 것은

3) 참조.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2 4쇄, 48-50쪽. 「소」: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51권), 제31권, 東晉罽賓三藏瞿曇僧伽提婆 譯, 대정신수대장경 제2권, p.717b19-25. “小兒以啼爲力. 欲有所說. 要當先啼. 女人以瞋恚爲力. 依瞋恚已. 然後所說. 沙門·婆羅門以忍爲力. 常念下. 下於人然後自陳. 國王以憍驚爲力. 以此豪勢而自陳說. 然阿羅漢以專精爲力. 而自陳說. 諸佛世尊成大慈悲. 以大悲爲力弘益衆生.”

4) 참조. 은정희 역주, 같은 책, 65쪽. 「소」, “如來所說一切法門之根本義. 以是一心二門之內, 無一法義而所不攝故.”

5) 참조. 같은 책, 86-89쪽.

6) 참조. 박휘근, 『한국인의 존재지혜 I』,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998 가을 학기 세미나 강의록, 1998, 25-26쪽.

시대마다 철학자들마다 존재로 표상해온 것들이 각기 다른 말들로 드러나 언제나 표상되고 있는 바, 존재가 늘 밝혀져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는 늘 열어 밝혀져 있으면서 스스로 감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존재는 늘 침묵 속에서 그 시대마다 어디서나 언제나 그 시대의 부름 속에서 그때마다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하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

존재는 시대마다 철학자들마다 다르게 표상되어 온 바 그 모두를 총섭하면서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존재를 시대마다 철학자들마다 표상해온 온 그 말들은 모두 각각 존재를 표상하는 바, 늘 밝혀져 있다. 이것은 원효의 이야기와도 닿아있다.

원효는 일심이 인연(因緣)의 측면에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일체를 포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심의 이문 즉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이 해석(解釋)의 측면에서 모두 각각 일체법을 총섭한다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겹쳐져 있어 서로 여의지 않는[不相離] 개념이다. “(더럽고 깨끗한) 염정(染淨)의 모든 법이 그 본성이 둘이 없으니 진망(眞妄)의 이문(二門)이 다름이 있을 수 없다.”<sup>7)</sup> 마음에 비취지는 세상사의 경계 일체를 가장 단순화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모두 그 본성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되다느니 거짓되다느니 하는 이분법적 경계의 두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一)’이라고 한다. 차별적 세계, 이분법적 세계는 이제 동근원적인 세계로 둘일 수 없기 때문에 일(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가운데에 실(實)한지라 허공(虛空)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해(神解)하기 때문에 심(心)이라 이름한다.”<sup>8)</sup> 이 둘이 없는 곳, 차별이 없는 곳, 고요와 침묵만이 있는 곳이

7) 은정희 역주, 같은 책, 88쪽, 「소」, “染淨諸法其性無異, 眞妄二門不得有異.”

8) 같은 책, 같은 곳, 「소」, “此無二處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어디에나 두루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가운데 실하다”고 하는 것이다. 두루 짝 차 있으니 텅 빈 허공과 같지 아니하고,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이해’하기 때문에 ‘심’이라고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설명의 말은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도리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은 말과 생각을 끊은 경계로의 도약을 요구한다.

원효는 둘이 없으므로(無二) 하나도 있는 바가 없으며(一無所有), 하나도 있는 바가 없으므로 마음(心)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스스로 물으면서 무엇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한다. 그러나 원효는 여기서 설명을 멈추지 않고,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 일심이라고 설명한다. 원효에 따르면, 일심은 일체법의 무생무멸(無生無滅)한 본래 고요한(寂靜) 경계이다. “모든 정상에 고요함이 있다”는 시 구절을 하이데거가 그의 『형이상학입문』에서 인용하여 존재자의 존재 경계를 침묵으로 표상하여 가리켜 말하듯이, 원효는 일체법을 총섭하는 경계로서의 일심을 고요함(寂靜)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요함의 측면이 일심의 진여문의 측면이고, 어리석음으로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생멸(生滅)을 일으키는 측면이 일심의 생멸문 측면이다. 따라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구분되는(不相雜 혹은 非一) 측면이 있다.

또, 고요함을 머금은 생멸하는 중생심 때문에 일심을 여래장(如來藏)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여래장은 선(善)과 불선(不善)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생멸문에 있다. 그런데 생멸심만을 취해 생멸문을 삼은 것이 아니고, 생멸자체(生滅自體)와 생멸상(生滅相)을 통취한 개념이다. 흔히 생멸문은 더러운 것이고 진여문은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오해이다. 생멸문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각각(別) 나타낸다.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것 모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일체의 모든 법을 총섭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의 통상(通相)일뿐이지 통상(通相)이외에 따로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이 없다. 진여문

은 인(因)의 측면이며, 생멸문은 연(緣)의 측면이다. 인연(因緣)이 화합(和合)하여 모든 현상을 이루듯이, 생멸문에서도 진여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융통하여 한계가 없고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不相離 혹은 非異]

이처럼 원효가 주목하는 감추어져 고요한 측면의 진여문과 드러나 생멸하는 측면의 생멸문은 비일비이(非一非異) 불상리불상잡(不相離不相雜)의 무관계(無關係)적 관계(關係)로서 일심의 이중성과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다.

원효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생명 없는 것을 포함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자신과 비일비이(非一非異)의 관계로 신적인 이해(神解)를 하고 그들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다르면서도 동시에 하나(一心)임을 알고, 나 남이 둘이 아니니(自他不二) 무연(無緣)함을 알고 그래서 동체(同體)로써 힘을 내어 무연자비(無緣慈悲)와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이루고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삶의 문법을 실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온 삶은 무애(無碍)의 삶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의 배움과 물음 그리고 당대의 학자들을 향한 질타는 원음(圓音)을 듣고 일미(一味)를 맛보며 귀일심지원(歸一心之源) 하도록 화쟁(和諍)의 논리를 펼친 것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화쟁 논리의 힘은 범부 중생에게는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그 길로 안내한다. 그런데 동시에 범부가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화쟁 논리의 힘은 곧 일심이라는 근원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존재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존재의 부름 없이는 존재자의 응답이 불가능하듯이, 일심이라는 근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힘은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범부중생의 몫이지만 일심이라는 근원으로부터의 부름 없인 불가능하다. 때문에 온전한 존재 이해는 온전히 근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온전히 근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의 마음을 관(觀)하며 관하는 주체와 대상이 사라져 오직 관만이 성성(醒醒)하고, 무장무애(無障無礙)하여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隨處作主)이다. 우리는 그때그때 시대마다 역사적 부름에 응답하며 열심히 살았다. 또 열심히 살 것이다. 우리가 일깨워야 할 것은 더욱 깨어있는 마음이다. 어디를 향해 왜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더욱 크고 넓은 시각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남이지만 나와 다른 남, 나와 동떨어진 남이 아니다. 남은 나로부터 떨어져 아무 관계도 없을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마주해 있을 때만 남이다. 나 없이는 남도 없고 남 없이는 나도 없다. 이처럼 남과 나는 다르지만 동근원적(同根源的)이다. 다음으로 하이데거의 사색의 길을 검토하고자 한다.

#### 4. 현대문명의 병리현상과 정신의 추락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 형이상학이 존재망각의 길을 걸었으며, 그 존재망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운명적 결과가 정신의 추락과 함께 현대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 서양 형이상학의 종말을 고하고 존재를 다시 일깨울 수 없으며 그래서 추락한 정신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미 서구화된 물질문명의 현대적 삶의 편리성과 그 시혜와 동시에 제기되는 위기와 정신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고유한 마음을 찾고 추락한 정신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서구물질문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되살릴 것이 우리가 되살릴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현대문명의 병리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정신의 추락에 있음을 밝히는 하이데거의 현대 문명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중반인 1953년에 출간한 『형이상학입문』에서 유럽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커다란 두 집게 사이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하며, 두 나라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한 문명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논자는 우리도 두 강대국의 영향 하에서 20세기의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시기를 보냈고 여전히 그 영향을 받으며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어내며 자본주의화 되는 중국이나 이미 철저하게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고도로 산업화된 일본과 함께 더욱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21세기에 서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적 분석은 오늘 우리 현대 문명의 위기로서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점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서양 과학기술문명의 세례를 받은 문명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이데거의 설명<sup>9)</sup>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20세기 중반의 이야기이다. 이 설명은 이제 우리를 포함한 기계문명이 지배적인 현대문명 국가의 문제들을 동시에 생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에서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일곱 가지 현대문명의 문제점들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설명할 것이다.

첫째, 미·소 양 대국을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끝 간 데가 알 수 없는 고삐 풀린 기계문명의 발광과 존재의 바탕이 없는 규격화된 현대인이 함께 조직을 만들며 토해내는 절망적 광란이다. 그들은 존재의 근거가 없는 현대인들이기에 더욱 집단적인 기승을 부리며, 또 근거가 없는 속빈 껍데기의 말에 쉽게 동조하여 부화뇌동한다. 그들은 조화를 모른다. 전 우주적 동일한 바탕의 생명에서 비롯하는 존재자들의 다양한 발현을 모른다. 따라서 존재를 망각하고 존재를 존재자화한 서양적 존재만을 유일한 진리인 양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가 망각된 존재자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광란에 휩싸여 있다. 도구적 이성<sup>10)</sup>에 의해 정당화되어 발전하는 기술은 살상무기에 제

9) 참조.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입문』, 박희근 옮김, 문예출판사, 1994, 74-75쪽.

일 먼저 응용되어 존재의 고삐가 풀려 살상의 맨 앞자리에서 인간이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광란의 기술이 되었다. 기술은 도통 진정한 인간적 자비심을 모르며 어질 수가 없다. 광란의 기술에 빠져 있는 현대문명의 첨단기술 보유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애와 형제애의 명분으로 인류가 살상되는 전쟁을 일으킨다.

둘째, 그들은 착취가능한 지구의 모든 오지를 찾아 기계문명의 기술로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그들은 오지의 원주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정복의 대상이며 이용의 대상이며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정복가능한 모든 오지를 정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도통 자비심을 모르며 어질지 못하다. 자신들과 소통 가능한 부류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잊어버린 것만 같다. 사랑은 계산적 이성의 산물일 뿐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들은 조화를 모른다.

셋째,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임의로 지구상의 모든 일에 접근하며 신속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수중에 넣는다. 세계 도처의 하늘과 땅에 정보수집 가능한 기구를 배치하며 인력과 장비를 들여 끊임없이 염탐하며 수중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줄 목표물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그 주인을 파괴하고 그 목표물을 수중에 넣어버린다. 그들은 조화를 모르며 자비심과 어짙은 흔적조차 없는 듯하다. 사랑은 명분이며 구호일 뿐이다.

넷째, 지구상 어떤 곳에서 그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참사와 다른 곳에서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예술을 동시에 '체험'하도록 알려주는 차가운 이성이 있다. 그들의 이성은 머리에서만 일어나 마음이 굳어버린 듯 하다. 안방에서 거실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 전쟁으로 죽어가고 굶어죽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세계의 아름다운 음악과 그림을 감상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없고 머리에서 계산된 이성적 사랑의 냉철함이 그들을 지배한다.

다섯째, 시간은 다만 속도와 순간과 동시성으로 해석되고,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역사와 모국어로부터 멀어지며 자신들의 시간이 사라지도록 강요받는다.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의 들이나 논길이나 밭길 혹은 산이나 공원에서 아이와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과 아침·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은 세계 공용어 영어와 세계보편 언어인 수학공부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추억은 사라지고 엄마의 혀는 자신과 다른 시간과 장소와 역사를 가진 이의 혀로 대체되어 버린다. 모든 인류의 엄마 말은 그들 각자 그들이 살고 있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같은 햇빛과 같은 바람을 느끼고 맞는 사람들의 소리감각을 느끼며 쉽게 말하게 되고 쓰게 되는 것인데 그들의 말은 세계 공용어 영어로 대체된다. 세계 곳곳의 민족들의 과거 역사적 시간은 사라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것처럼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과거 다양한 소수민족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관습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국 역사와 하나의 중국어로 기술되기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여섯째, 권투 선수가 가장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권투 선수뿐만 아니라 박세리나 미셸 위 같은 골프 선수나 박지성 같은 축구선수, 그리고 박찬호 같은 야구선수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보상받는 것인가? 도대체 그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이나 광고수익에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도 왜 그들에게 열광하는지 모른 채 열광하고 있다.

일곱째, 수백만 명의 군중이 모인 대중집회가 가장 찬란한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대중집회는 사유가 없다. 스스로의 침묵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사유가 없는 대중집회의 구호는 유령의 도깨비 장난과도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세계최고의 신도수를 자랑하며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위성중계를 통해 함께 예배를 보기도 하는 교회에서 그들은 그들의 대중적 설교에 열광하고 있다.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이와 같은 현대문명의 물결이 정말로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그 흐름은 도대체 어디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음울해지고, 신(神)들은 자취를 감추고, 땅은 파괴되고, 인간들은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자유스럽고 창조적인 모든 것에 대한 가증스러운 의심이 이미 세상천지를 온통 휩쓸어 도무지 비판론이니 낙관론이니 하는 아이들 장난과 같은 개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sup>10)</sup> 하이데거가 “우리는 집계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당시 독일의 위기를 말하듯이,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현대 문명의 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줄기찬 현대 문명화의 길에서의 성공의 영광과 함께 현대문명의 올가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올가미는 정신의 추락에 다름 아니다.

그 시원을 잃고 본래성을 회복하려는 힘은 망각된 채 추락한 정신을 담은 서양 과학기술 문명의 빠른 도입은 우리 자신의 부정과 고유한 정신의 추락을 함께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비판은 우리의 눈에 독일과 일본에 그리고 이제는 잘 서양 문명화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두 나라 문명에 대한 시각은 다시 서양화된 우리 문명의 문제를 돌아보는 데 중요하다. 이는 서양화가 지상과제이다시피 한 20 세기의 결과로서의 현재 21세기 초반 우리 문명을 되돌아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현대 문명 문제는 이에 대한 더 근본적 물음과 이해가 요구된다.

다음에서 이와 같은 근본물음과 함께 하이데거의 존재이해를 좀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 5.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와 진정한 앎

---

10) 같은 책, 74쪽.

하이데거에 따르면, 서양 현대과학기술문명은 서양철학으로부터 기원하는 바, 서양 현대과학기술문명의 문제는 서양철학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특히 근원적 문제는 서구 2500년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 이해의 문제와 관련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한 설명을 따라 존재에 대한 진정한 앎을 알아보고, 21세기 오늘 다시 불러일으킬 존재이해가 무엇인지 사색해 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말 속에서 그들의 심상에 늘 아로 새겨진 존재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존재(있음)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그들 언어에서 존재(있음)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사용되어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용되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늘 쓰는' 예를 든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sup>11)</sup> ① 신은 있다(Gott ist) - 신(神)이 정신적으로 현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지구는 있다(die Erde ist) - 지구가 신변에 가까이 있다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강연은 강의실에 있다(강의실에서 행해진다/Der Vortrag ist im Hoersaal) - 강연이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이 사람은 슈바브 지방 사람이다(Dieser Mann ist aus dem Schaebischen) - 그 사람의 고향이 슈바브로서 그의 출신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이 잔은 은 잔이다(Der Becher ist aus Silber) - 이 잔은 은으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⑥ 농부는 들에 있다(Der Bauer ist aufs Feld) - 농부가 들에 머무르고 있거나 들에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⑦ 이 책은 내 것이다(Das Buch ist mir) - 책의 소유를 나타내고 있다. ⑧ 그는 죽은 사람이다(Er ist des Todes) - 죽어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⑨ 붉은 색은 (배의) 좌현이다(Rot ist backbord) -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⑩ 러시아에는 기근이( 들었)다(In Russland ist

11) 참조. 같은 책, 149쪽.

Hungersnot) - 기근의 사태가 벌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⑪ 적군은 후퇴중이다(Der Feind ist auf dem Rueckzug) - 물러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⑫ 포도밭에는 포도혹벌레가 있다(In den Weinbergen ist die reblaus) - 곤충이 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⑬ 개는 마당에 있다(Der Hund ist im Garten) - 개가 마당에서 뛰놀고 있다든지 그냥 있다든지 어슬렁거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⑭ 모든 정상에는 / 고요함이 있다(Ueber allen Gipfeln / ist Ruh) - ???

여기 모든 문장들에서 보이는 '이다/ 있다'(ist)는 각각의 다른 특정 목적에 대해 어떤 특정한 기분으로 각각 다른 사태를 말하고 있다. 하나의 'ist', 우리말로는 '있다/이다'가 다양한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① 부터 ⑬까지 모두 다른 무엇들과 갈라져서 하나의 사태로 즉 낱말의 무엇으로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나투고 있다. 그런데 ⑭는 무엇과 갈라져서 하나의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과는 갈라질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이냐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억지로 무엇이냐고만 할 수 있는 무엇으로만 나타나는 이상한 나뉠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괴테의 시 한 구절 “이 '있다' 일 뿐인 것이다!”를 인용하면서 멈칫거리며 예둘러 설명하거나 설명을 주저하거나 설명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이로써 있음은 그렇게 자명하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주저도 없이 사용되는 자명한 사태에 대한 자명한 개념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유일하고 단순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있음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존재의 이중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존재물음은 자명하여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는 바보 같은 시간낭비적인 질문이 아니며, 혹은 그것은 잡히지 않는 아무 것도 의미가 없는 빈 물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존재에 대한 열린 물음이다.

12) 참조. 같은 책, p.150쪽. ; 참조.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380-394쪽. ; 참조. 김형효, 『하이데거와 화업의 사유』, 청계, 2004 초판 2쇄, 40쪽.

있음은 그 자체로는 확정되지 않지만 다양한 사물과 사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낱말이지만 종개념(Gattungsbegriff)은 아니고, 이 다양한 의미들을 총섭(總攝)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있음은 있는 것들만을 위한 계산적 사유의 이성적 언어로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자명한 진리가 아니다. 서양 형이상학이 존재 망각의 길을 걸은 것은 바로 이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있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있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드러내주는 그렇지만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있지 않음은 (숨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드러나) 있음과 함께 속해 있다. 있지 않음은 (숨겨져) 있으므로 없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그저 아무 것도 없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있지 않음은 (숨겨져) 있기에 역설적으로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 나타나는 있음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있음과 같은 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형이상학적 안목 속에서만 나타나는 있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것의 있음을 풍부하게 하며 있음의 있음다움을 더욱 가능하게 해주는 힘도 된다. 두 면으로 있음을 나누어 보면 그것이 구별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져 구별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있음과 없이 있음의 구별은 곧 서로 함께 속해 있다는 공속성(共屬性)을 드러내고 있다. 있음과 없이 있음은 반대의 두 사태가 함께 속해 있어 하나임(Einheit)을 드러내게 된다.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는 바로 있는 것의 영역만을 있음으로 규정하면서 나머지 반의 없이 있음을 망각해 온 것이다. 드러나 있는 것들의 있음만 있음으로 보고, 그것을 자명하게 여겨 있음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있음은 설명 가능한 것으로 몰아세우며 자명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본래적으로 묻지 않은 그런 존재 망각의 역사를 걸어온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설명한다. 그래서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는 뜻 새김의 사유는 망각되고 계산적 사유의 발달을 더욱

부추기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서양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며 계산적 이성만을 추앙하고 좇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산적 사유에 의해 나타나 보이는 그것과 연관되고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와 연관된 많은 다른 문제들과 그 시원들을 함께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살아나고 솟아나는 뜻 새김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앎은 하나의 진리만을 맹목적으로 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진정한 앎을 지닌 대장부는, 가상으로의, 있음으로의, 그리고 있지 않음으로의, 이 세 개의 길을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앎을 지닌 대장부는 맹목적으로 하나의 진리만을 뒤쫓는 사람이 아니다.<sup>13)</sup> 존재 망각은 진정한 앎의 망각이다. 진정한 앎은 나타나 있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 있는 것의 가상과 나타나 있음과 나타나 있지 않음을 모두 아는 것이다. 진정한 앎은 존재의 심연에 젖어들어 올바른 인내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올바른 때에 울려오는 그 심연의 침묵소리를 올바로 듣고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다. 침묵소리의 올바른 들음과 올바른 응답은 어떤 것일까?

원효에게 진정한 앎에 도달해 존재의 심연에 젖어들어 그 심연의 소리를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응답하는 이는 스스로 (입을 굳게 다문) 두구대사(杜口大士)와 (눈만 마주쳐도 도가 있음을 아는) 목격장부(目擊丈夫)가 될 것이다. 위학자(爲學者)는 금방 삼장(三藏 : 경장·율장·논장)에서 그 뜻을 두루 찾을 수 있으며, 위도자(爲道者)는 언제나 온갖 경계가 길이 쉬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앎을 이룬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이들이니, 입을 꼭 다문 큰 선비(杜口大士)이고, 눈부릅떠 도를 마주쳐 아는(目擊) 장부이다. 이들이 진정한 앎에 이른 이

---

13) 참조. 같은 책, 188.

들이다. 원효는 이들이 아니고서야 존재[大乘]에 대해 말을 떠난 중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생각이 끊어진 데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온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입을 굳게 다문) 두구대사(杜口大士)와 (도와 눈 맞춰 있음을 아는) 목격장부(目擊丈夫)가 아닐진대 누가 말이 떠난 중에서 대승(大乘)을 논할 수 있으며, 생각이 끊어진 데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것인가?”<sup>14)</sup>

## 6. 나가는 말

논자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우리 고민의 길은 명석판명(明皙判明)한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두 전통 철학 본래 고유 사유의 맛을 보는 안내이다. 논자는 우리가 존재 이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석판명하게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존재로부터 멀어져 존재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이데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치 서양에서의 존재와 같은 무계로 읽히게 되는 일심(一心)에 대해 원효도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가운데에서 논해지는 길 없는 길이고 그래서 모든 길이 다 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이데거와 원효의 존재 이해의 길이 그 배경이 달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존재 이해에 대한 설명에서 둘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바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바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이를 구지 말하자면, 하이데거는 현대문명의 위기의 원인을 물으며 서양 형이상학에서 존재망각을 해왔다는 진단으로 답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 원효는 자신과 사람들 마음 속 괴로움의 원인을 물으며 마음에 깊이 주목하며 전일하고 온전한 마음의 상실 때

14)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논소·별기』, 20-21쪽, 「소」, “自非杜口大士, 目擊丈夫, 誰能論大乘難言, 起深信於絕慮者哉.”

문에 피로움을 겪는 것이니 일심이라는 근원에 돌아가라고 말한다.

우리 현대문명 위기의 원인이 서양에서의 존재 망각과 같이 일심 망각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가 더욱 빠른 속도로 눈에 보이는 실적만이 요구되고, 증명되는 것만이 지상과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 그 깊고 넓은 그리고 높은 마음을 점점 상실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기품을 상실하고 넉넉함을 잃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잃는 것이 오늘날 기술과학문명 시대의 위기를 더욱 몰아세우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끝 모르게 질주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논자는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서 회복되어야 할 불씨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데거가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Sein)의 이해가 침묵의 이해, 무(無)의 이해라면,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은 본래 마음이다. 즉 일심(一心)이라는 근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동·서가 융합된 현대 한국문명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은 동·서 각각의 존재 부름을 서로 소통(疏通)되면서도 각각 고유한 그런 소리로 알아듣고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통관(通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여야 동·서가 융합된 우리 현대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갖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세계 문명이 그들 각자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종교와 철학을 통해 익힌 바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혹은 너무 벗어난 채, 끄트머리를 붙잡고 달려가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파멸을 자초할까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다.

근원을 바라보면서도 지류에서 헤매고, 잎사귀를 잡고서 줄기를 잃으며, 옷깃을 끊어서 소매에 붙이고, 가지를 잘라서 뿌리에 두르려 한다.<sup>15)</sup> 대롱으로 하늘을 다 보려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소라로 온

15) 참조. 은정희 역주, 같은 책, 27쪽. 「소」.

바닷물을 다 길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sup>16)</sup>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귀에 들리지 않는 것까지 듣고 보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지혜의 눈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곳, 귀에 들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두에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원효는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 나와 남이 돌이 아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동체대비(同體大悲)한 마음을 발해,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마음이 되어 잘 어울려 살라는 삶의 지혜를 주고 있다. 우리 위기 극복의 철학적 시원지는 바로 우리 마음 밭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원효의 다음 글을 음미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무릇 이제중도(二諦中道)는 곧 (갈 수 있는) 길이랄 만한 게 없는 나루이며, 현묘하고 현묘한 법문(法門)으로 더욱 (들 수 있는) 문이랄 만한 게 없는 이치다. 길이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 써 행할 수 없고, 문이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행이 있어 써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큰 바다의 나루 없는 곳에 배를 띄워 노를 젓고, 허공의 기델 곳 없는 곳에 날개를 나부껴 높이 날아오른다. 이에 길 없는 길 이것은 길 아님 없고, 문 없는 문은 곧 문 아님 없음을 안다. 문 아님 없기에 일마다 모두가 현묘함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길 아님 없기에 곳 곳이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주 평이(平易)하여 능히 가는 사람이 없고, 현묘함에 들어가는 문은 태연(泰然)하여 능히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sup>17)</sup>

16) 참조. 원효 찬, 『열반종요(涅槃宗要)』, 한국불교전서 제1책, 1979, p.547a20- 21.; 참조. 김원명, 『원효 『열반경중요』의 열반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45-49쪽.

17) 원효 석, 『본업경소서(本業經疏序)』, 한국불교전서 제1책, 1979, p.498a03-11, “原夫二諦中道 乃無可道之津 重玄法門 逾無可門之理 無可道故不可以有心行 無可門故不可以有行入 然以大海無津 汎舟楫而能渡 虛空無梯 翻羽翼而高翔 是知無道之道 斯無不道 無門之門 則無非門 無非門故事事皆爲入玄之門 無不道故處處咸

## 【참고 문헌】

- 원효,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4쇄)』, 은정희 역주, 일지사, 1994.  
元曉, 『涅槃宗要』,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1979.  
元曉 釋, 『本業經疏序』,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1979.  
提婆 譯, 『增壹阿含經』(51권), 第三十一卷, 大正新修大藏經 第二卷.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입문』, 박휘근 옮김, 문예출판사, 1994.  
김형효,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초판 2쇄)』, 청계, 2004.  
——, 『하이데거의 마음의 철학』, 청계, 2000.  
박휘근, 『한국인의 존재지혜 I』,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998 가을학기 세미나 강의록, 1998  
유창균 편저,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1988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박정근, 元曉思想 小考(其一)-『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입문(入門)의 한 걸음-, 『인문학연구』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김원명, 「元曉 涅槃經宗要」의 涅槃論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是歸源之路 歸源之路甚夷而無人能行 入玄之門泰然而無人能入”

**【Abstract】**

## **An Inquiry of Wonhyo & Heidegger's Being Understanding to Overcome a Contemporary Civilization Crisis**

**Kim, Won-Myoung**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eek after a philosophical idea of overcoming a contemporary civilization crisis by inquiring of Wonhyo & Heidegger's ontological Being understanding. Heidegger criticizes western metaphysical history as an history of Being forgetting. Being which Heidegger want to speak contains Non-being which have been forgotten and excluded yet in western metaphysical tradition. It seems that Being consists of two sides, the revealment and the hide. But the side of the hide has been mainly forgotten during history of western metaphysic. In front of the traditional western philosophy a logical calculative thought has leded to regard Being as being, and consequently to bring out modern technology & science. The civilization of modern technology & science is on the crisis. The modern Korean civilization has imported a western civilization of modern technology & science with the crisis of that, simultaneously has forgotten one of our major traditional Being understandings, one mind Ilsim especially focused by Wonhyo. Ilsim contains two sides(duplicity), the variable or the invariable; permanence or impermanence; transcendence or immanence; essence or phenomena etc. Hence it can give us a balanced view. Wonhyo & Heidegger's Being understandings have commonly the sight of two sides(duplicity) of Being. It is thought that a philosophical

way of overcoming a contemporary civilization crisis is to rethink modernly those ways of a forgotten philosophical thoughts like above.

**[key words]** one mind(Ilsim), Being, duplicity, a contemporary civilization crisis